

5책형(3책형)	기출빈도	출제 Point	함경백 객관식 경제학	출제경향 및 풀이공식
1(11)	A	유동성합성	[거시/국제] p.217	예상문제 ★ 진도별 모강 4회 11번 적중 ★ 전범위 모강 5회 11번 적중
2(12)	A	조세부과의 효과	[미시] p.170	계산문제 Quick Solution [Hahm's Matrix] ★ 아침특강 3월 11일 9번 적중
3(13)	A	피셔방정식	[거시/국제] p.291	계산문제 ★ 아침특강 7월 1일 3번 적중
4(14)	A	먼델-플레밍 모형	[거시/국제] p.870	Quick Solution [고재변금] ★ 거시 /국제편 884p 13번 적중
5(15)	B	우하향하는 AD곡선	[거시/국제] p.238	예상문제 ★ 진도별 모강 4회 13번 적중 ★ 전범위 모강 2회 12번 적중
6(16)	A	필립스곡선	[거시/국제] p.385	★ 진도별 모강 5회 5번 적중 ★ 전범위 모강 3회 14번 적중
7(17)	A	헷서-올린 모형	[거시/국제] p.779	[스톨퍼-사뮤엘슨정리] ★ 진도별 모강 6회 12번 적중 ★ 전범위 모강 2회 19번 적중
8(18)	A	외부효과의 내부화	[미시] p.759	계산문제 ★ 아침특강 6월 10일 4번
9(19)	B	절대소득가설	[거시/국제] p.417	[회귀분석] [수식에 대한 해석]
10(20)	A	공공재의 최적공급량	[미시] p.814	계산문제
11(1)	A	화폐수량설(교환방정식의 활용)	[거시/국제] p.561	[수식에 대한 해석] ★ 거시 /국제편 p.567 10번
12(2)	A	외부효과의 내부화	[미시] p.759	계산문제 ★ 아침특강 6월 10일 6번
13(3)	A	항상소득가설	[거시/국제] p.420	[현재소비의 과잉민감성] ★ 미시편 p.437 모형 적중
14(4)	C	평균비용 vs. 한계비용	[미시] p.393	Quick Solution [평균 vs 한계] ★ 미시편 p.395 1번 적중
15(5)	A	구매력평가설	[거시/국제] p.825	★ 거시 /국제편 p.826 1번
16(6)	A	성장회계방정식	[거시/국제] p.655	계산문제 ★ 아침특강 7월 22일 5번
17(7)	A	AD-AS	[거시/국제] p.252	★ 진도별 모강 4회 15번 적중
18(8)	B	생산자의 비용극소화	[미시] p.409	계산문제 예상문제 ★ 진도별 모강 2회 9번 적중
19(9)	A	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	[미시] p.103	[수식에 대한 해석] ★ 미시편 p.105 2번 적중
20(10)	A	관세와 수입할당제	[거시/국제] p.726	계산문제 ★ 거시 /국제편 p.732 6번

출제범위와 난이도

1

- 2015년과 마찬가지로 A급과 B급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았다. A·B급 출제포인트에서 95%(19문제)가 출제되었다. C급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기본적인 평균과 한계의 원리를 묻는 문제였다. A·B·C급에서 100% 출제되었다.
- 계산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았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 2015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.
- 첫째, 계산문제가 8문제(40%)가 출제되었다. 다른 과목과 함께 시간이 할당되는 시험의 특성상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. 2014년 이후로 공무원 시험에서 계산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었다. 주어진 수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 푸는 문제 3문제를 포함하면 11문제가 계산과 연결된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.
- 둘째, 서울시 7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조세부과의 효과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계산과정에서 3분 이상 걸리는 문제이지만 Hahn's Matrix 공식을 활용한 수험생은 20초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.
- 셋째,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. 절대소득가설에 의한 소비함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식을 해석하는 문제는 계량경제학의 내용이다. 공유지의 비극을 전제로 한 계산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응용문제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.

파트별 출제비중

2

미시	거시	국제	총계
7	9	4	20
35 %	45 %	20 %	100 %

- 미시경제파트에서 7문제(35%)가 출제되어 이전보다 출제비중이 감소하였다.
- 거시경제파트에서 9문제(45%)가 출제되고 국제경제파트에서 4문제(20%)가 출제되었다.
- 미시경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거시경제와 국제경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.
- 최근 10년간 출제비중을 고려해볼 때, 미시경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거시경제와 국제경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.
- 2015년 국가직 7급 시험과 비교하여 거시경제학이 1문제 감소하고 국제경제학이 1문제 증가하였다.

빈도별 출제비중

3

A급	B급	C급	D급	총계
16	3	1	0	20
80 %	15 %	5 %	0 %	100 %

- 10년간 빈출된 출제포인트인 A급과 B급에서 95%가 출제되었다.
- 평균비용과 한계비용(C급) 문제는 평균과 한계의 원리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기본문제로 입문강의부터 강조하는 원리 중의 하나이므로 A·B급 출제포인트에서 100%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- 10년간 공무원 기출문제를 분석한 A급과 B급 출제포인트에서 집중적(95%이상)으로 출제되었다.
- 계산문제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 부담이 되는 문제구성이었다. 2014년 이후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간에 쌍대성 원리를 응용한 생산자의 비용극소화 문제와 세후 실질이자율 계산하는 문제는 최근에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으로 강조했었는데 그대로 출제되었다.
- 조세부과의 효과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Hahm's Matrix를 활용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.
- 절대소득가설의 소비함수를 회귀분석한 결과에 대해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경제학을 전공하였거나 통계학적인 지식이 없는 수험생은 맞추기 힘든 문제였다.
- 출제된 계산문제 모두 A·B급 출제포인트에 해당한다. 평소에 매우 많은 연습을 해 두어야만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.
- 앞으로도 A급과 B급 출제포인트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겠다.
-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.